

2021 THEME 믿음의 태도가 신앙의 고도를 결정한다

I = Imaginative Ministry [창의적 사역]
M = Making Disciples [제자 양육]
P = Passionate Worship [열정적 예배]
A = Action for the Gospel [복음의 실천]
C = Community Outreach [이웃 섬김]
T = Training Missionaries [선교사 양성] &
 Transforming the World [세상을 변화시킴]



담임목사: 김한요
Rev. Bryan Kim, Lead Pastor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el: 949.854.4010 ♦ www.bkc.org ♦ bethel@bkc.org

각 교육부 및 그 외 주일예배 안내



- 유아부(2-3세) / 본당 2층 영아부실, 온라인
11:00AM
- 유치부(4-5세) / 유치부실(구식당), 온라인
11:00AM
- 유년부(1-3학년) / 임마누엘, 온라인
11:00AM
- 초등부(4-6학년) / 체육관, 온라인
11:00AM
- 영어중등부(BYM Jr.) / 비전채플, 온라인
11:00AM
- 영어고등부(BYM) / 비전채플, 온라인
9:00AM
- 한어중고등부(CIM) / 살롬채플, 온라인
11:00AM
- 소망부(장애인) / 온라인
11:00AM
- BETHEL GRACE CHURCH / 비전채플, 온라인
2:00PM
- 日本語 礼拝 / 임마누엘채플, 온라인
1:15PM

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케이블TV 방송 (CTS America):
TV DirecTV 채널 2092 · 공중파 채널 18.8
화요일/오후 8시 30분 · 목요일/오후 1시
- TV 방송 (미주 CGN TV):
TV 채널 31.9 · 화요일/오후 2시
- 라디오 방송 (GBC 미주복음방송):
주파수 AM 1190 KHZ · 금요일/오후 1시

주 일 예 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1부 예배 | 7:00AM 2부 예배 | 9:00AM 3부 예배 | 11:00AM 4부(청년) 예배 | 2:00PM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Presider 예배 인도자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 All together 다같이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Bethel Worship 베델 워십

영상광고 Media Announcement Media 방송실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1, 2, 3부/빌립보서 1:12-18..... All together 다같이
4부/마태복음 7:1-6

말씀 Message 1, 2, 3부..... 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기쁨으로 리셋(5) 떠밀린 기쁨

4부 Rev. Abel Kang 강문구 목사
네 뜻대로 되리라

적용찬양 Song in Response 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내 영혼이 은총 입어(찬495/새438장), 때로는 너의 앞에

*결단찬양 및 봉헌 Song of Commitment & Offering 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믿음 in '21

*축도 Benediction 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 온라인 예배는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ww.bkc.org)

★ 교회학교 예배가 온라인으로 제공됩니다.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담임목사 칼럼
Lead Pastor's Column

4대째 신앙 가문의 원조

4 Generations of Believers



김한요 목사 / Rev. Bryan Kim

저희 가정에 예수 신앙을 시작하신 외할머니가 지난 월요일, 106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할머니부터 시작된 믿음이 지금 우리 아들딸에게도 이어졌으니, 저희도 4대째 신앙 가문이 되었네요. 슬하에 7녀 1남을 두셨는데, 그중 유일하게 미국에 이민 간 둘째 딸(저의 어머니) 가정 때문에, 미국 첫나들이를 첫 손자인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에 맞춰 오셔서 축하해 주셨던 자상한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가 미국 오셨던 것은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때 할머니를 모시고, 나이가가라 폭포를 다녀왔었는데, 그것이 좋으셨는지 한국 돌아가셔서 친구분들에게 “나이가가라 가 봤냐?”라고 하시며 그 후 10여 년 동안 자랑을 하며 다니셨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이민 온 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 때는 대학 졸업 후, 신학교 시절이었는데 한국에서 올림픽이 열리던 1988년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에 전화 한 통 하는 것도 요즘이 만만치 않아서, 전화 목소리 듣고 ‘얼른 끊자!’ 하던 74세의 할머니가 기억납니다. 그 시절에 아들이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으니, 저의 어머니는 “올해가 마지막일 수 있으니, 할머니에게 꼭 인사드리고 오라”며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당연히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한국... 정말 오늘이 할머니를 보는 마지막 날일 수 있겠다 싶어서 드라마에서 나오는 “님은 먼 곳에...” 같은 이별을 했습니다. 그 이후 한국 방문이 조금은 수월해지고, 저도 목회를 시작하면서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생길 때마다 어머니는 할머니에게 안부를 전하고 올 것을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올해가 마지막일 수 있으니 꼭 찾아뵙라.” “네, 어머니, 꼭 인사드리고 오겠습니다.” 이런 마지막 인사를 그 후 30년 넘게 해왔습니다. 아무리 눈물의 이별을 해도, 외할머니는 돌아가시지 않았습다. 100세를 넘기실 때는 ‘이왕 이렇게 된 거 기네스북에 오르실 때까지 간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를 만날 때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막상 그 말씀을 듣는 할머니는 그리 좋아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사위 셋을 당신보다 먼저 앞세웠으니, 아들 셋을 가슴에 묻은 격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할머니 추모 예배를 어머니랑 준비하면서, 100세 넘게 장수하신 세월이 좋은 일만 있었던 시간은 아니었고, 오히려 더 많은 아픔과 시련이 있었지만, 우리 할머니가 좋아하시던 찬송가 가사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백 번 천 번 아멘입니다. 그중 제일 큰 은혜가 신앙의 물줄기가 우리 자손들에게 이어진 것입니다. 할머니가 즐겨 부르시던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찬송가를 우리 아이들과 함께 불러봅니다.

Since faith in Jesus began in our family, the first generation, my maternal grandmother went to be with the Lord last Monday at age 106. The faith that began with the grandmother has been passed on to my sons and daughters. Our family has become 4 generations of believers. My grandmother had 7 daughters and one son. Her second daughter, my mother, is the only one immigrated to US. My caring grandmother made a trip to US for the first time when I, her first grandson, graduated from college. That was her first and last trip to US. We went to see Niagara Falls with her during that time. I think she really enjoyed it. After she returned to Korea, I heard she bragged about the trip for over 10 years, asking her friends “Have you been to Niagara Falls?”

Since immigrating to US, my first visit to Korea was after college during my seminary years. It was the year that 1988 Olympics was held in Korea. At that time, my grandmother was 74 years old. That was during the time when a phone call to Korea was very expensive. You would listen to a voice from phone call and say, ‘let’s hang up quickly!’ My mother pleaded with me, “This could be her last year, please go and visit your grandmother.” Obviously, I went and visited her. I didn’t know when I would visit Korea again and thinking that this could be the last time I might see her, I bid her farewell like in a drama “My Love is Far Away...”. Since then, going to Korea became easier. I had more opportunities through ministry to visit. Each time I went, my mother would plead with me to visit my grandmother. “This could be her last year, please go and visit your grandmother.” “Yes, mother, I will visit her.” These last farewell visits went on for over 30 years. Even with tearful farewells, my grandmother did not pass away. When she turned 100 years old, we said ‘let’s keep going until she makes to Guinness Book of Records’.

Every time I visited her, I wished her long and healthy life. I don’t think my grandmother liked that too much. Her three sons in law went before her, like burying 3 sons-in-her heart. As I was preparing for her memorial service with my mother, over 100 years of her longevity was not all good times, but rather more pain and suffering. But we say Amen 100 times, 1000 times to the lyric of her favorite hymn “God’s Great Grace it is has Brought Us”. The greatest grace of all is the faith that has been carried on to the next generation. I sing with my children a hymn that my grandmother enjoyed singing, “Jesus Loves me this I know, we are weak, but He is strong.”

빌립보서 강해 -제5편

주일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설교자: 김한요 목사

기쁨으로
리셋

떠밀린 기쁨
(빌 1:12-18)

1. 내가 기대했던 계획이 틀어졌는데, 결과적으로 더 잘 된 적이 있었습니까? 그 경험을 나누어 봅시다.

2.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살았던 자였습니다. 그에게 모든 평가는 복음 전파가 진전(advance)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들어가 있는 상황은 당연히 복음의 진전에 큰 장애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매임이 누구에게 복음 진전으로 나타났나요?(12-14절)

1) _____ 2) _____ 3) _____

3. 16, 17절은 '이들'과 '그들'의 복음전파의 동기를(motivation) 대조합니다. 그들은 누구라 짐작합니까?
(17절, 갈 5:20-21, 롬 1:29)

4. '이들'은 바울의 매임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16절을 한영으로 자세히 읽고 답해 보십시오.
(참고/ 창 50:20, 롬 8:35-39, 롬 8:32)

16절 "어떤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5.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을 믿음으로 해석해 보십시오.

■ 적용찬양: 내 영혼이 은총 입어(찬495/새438장), 때로는 너의 앞에

적용하기



베델 제자반

믿음의 비밀을 아는 맛



제자훈련을 통해 받은 은혜들을 돌아보니 코로나 숲을 지나올 수 있었던 것은 말씀과 기도로 함께 하는 교회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익했던 것 중의 첫째는 성경 말씀을 매일 아침 가까이하며 묵상, 암송, 통독 훈련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설교 노트 필기도 말씀에 집중하게 하는 좋은 훈련이 되었고, 중보기도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며 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돌보고 계심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은 신앙생활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동역자들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베푸시고 사랑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질그릇 같은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제자반을 통해 서로의 연약함을 나누며 세워 가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서로 격려해주는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은하 집사



제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 무엇을 붙잡고 의지해야 할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속 세밀한 곳까지 헤아리시고, 이러한 순간에 제자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끄셨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에게 오셔야만 했는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성장하며, 교회와 선교에 대한 책임과 의무에 대해 배

우는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제자훈련을 함께하게 된 목사님, 동역자 집사님들과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든든한 중보자들이 있다는 기쁨도 컸음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고 나를 감동하게 하는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음을 고백합니다. 가족과 이웃을 바라볼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된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교만을 꺾으시고, 그 자리에 사랑을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30주간의 제자훈련은 마무리가 되지만, 이 시간은 마음속에 깊게 새겨 나침반으로 삼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훈련을 통해,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확증을 주셨습니다. 나를 이끄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조수진 집사



제자반을 처음 시작할 때 어머니는 코로나로 병원에 입원하여 사경을 헤매게 되었고 3월 초에 새로 시작한 사업은 팬데믹의 여파로 난항을 겪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때 내가 제자반을 포기하지 않고 시작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주 한주 제자반 수업이 거듭되어 갈수록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의 생각과 뜻, 그리고 주님을 향한 믿음은 점점 단단해져 갔고, 무엇보다 가장 걱정했던 암송 구절은 오히려 내가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이겨낼 수 있었던 믿음과 의지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사들이 살아날 가망이 없다고 말했던 어머니의 병은 기적적으로 치유되었고 지금은 완전히 퇴원하시어 이전같이 건강하신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제자반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로써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는 무엇인지 이 수업을 통해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던 나의 마음은 평안을 가질 수 있었고, 중보를 통해 나의 기도 음성을 하나님께서 늘 듣고 계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매일 사랑하는 주님께 고백하는 나의 기도의 간구와 음성을 주님이 귀 기울여 주셔서 저의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최동주 집사



제자반을 시작하자 위기가 왔습니다. 없었던 알레르기가 온몸에 생기고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제자반을 그만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목사님께 말씀드렸던

니 영적인 시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몸의 시험과 연단이 생각나 마음을 고쳐먹기로 하였습니다. 때마침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통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며 고난당하시는 예수님 모습을 보여주셨고 다시 도전해보자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했던 제자반은 시간이 지날수록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져 제 삶의 모습이 변화되어 갔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체험할 수 있었으며 말씀에 순종하며 다윗같이 하나님과 하나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배운 성경 지식과 은혜를 삶 가운데 적용하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가족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으로 리셋하여 살고자 결단합니다. 제자반을 돌아보며 늘 말씀으로 은혜를 부어주신 김한요 담임목사님과 지도해주신 목사님, 신실함과 따뜻한 섬김을 보여주신 제자반 동역자들에게 고개 숙여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황선욱 집사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어 양성되는 것입니다.”



Father's Day 특집

세상에서 가장 큰 이름, 아버지!

자라오면서 지금까지 아버지는 한 번도 어떤 선택을 강요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대학을 결정할 때나 진로를 결정할 때, 특히 결혼을 결정할 때에도, 항상 저의 선택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선택하기 어려울 때는 조금 더 강하게 조언을 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살아가면서 보니 사랑하는 가족이 나와 다른 의견을 가졌을 때 믿고 이해해 주는 것은 어려운 것임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듯 비록 실수를 하더라도, "너이기에 사랑한다" 마음을 조금이나마 깨닫습니다. 항상 부족한 저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과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김태훈 형제

아빠는 언제나 저에게 "우리 딸이 최고야!"라고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하지 않아서 정말 감사하지만 최근 저는 이러한 아빠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아빠는 언제나 저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고 이것이 오늘의 저를 있게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아빠, 저도 아빠가 최고예요! Happy Father's Day!

김나라(12학년)

주님은 우리에게 육신의 아버지를 주셔서, 그의 사랑과 공의를 감히 가늠할 수 있게 하십니다. 어릴 적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이란 질문에 항상 '아빠'라고 쓴 기억이 납니다. 아빠는 가정보다는 나라에 충성하고, 사랑보다는 공의로 저희를 가르치시며, 정직과 근면과 나눔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 아빠의 울타리가 얼마나 안전하고 편안한 것인지, 한국을 떠나서야 깨달았습니다. 미국으로 떠나기 전날 아이들에게 "링컨은 노예를 해방하기 위해 대통령을 꿈꾸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이루어주셨다, 선한 꿈을 꾸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라고 하신 말씀, 마음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아빠가 들려주신 귀중한 이야기들, 삶으로 보여주신 충성된 믿음을 저희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까요? 3년 전 엄마를 하늘나라로 보내시고, 어느덧 그 넓은 어깨가 아위어가고, 그 든

든했던 다리가 힘겨우신 모습을 보면 가눌 수 없는 슬픔이 밀려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다 하나님 은혜다, 언제 하늘나라에 가도 감사뿐이다"라고 하시는 나의 자랑스러운 영웅, 우리 아빠! 사랑하고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부디 저희 곁에 더 머물러 계셔서 그 깊은 지혜의 말씀과 넉넉하고 따스한 품을 오래 느끼게 해주세요. 아빠의 큰 사랑에 보답할 시간을 허락하시길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가장으로 충성을 다하는 베밀의 아버지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바칩니다.

박진아 권사

아버지를 만나러 갑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버스 정류장 앞에서 "우리가 언제 다시 만나겠니.."라며 갑자기 눈물을 쏟으시는 아버지의 모습. 2년 전 서운해하시던 아버지의 뒷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1년이 넘게 긴 코로나 숲을 지나고 이제 곧 부모님을 뵈러 한국으로 갑니다. 벌써부터 "다시 만날 날이 있겠지?"라며 눈시울을 붉히실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는 듯합니다. 돌이켜 보면, 고집스럽고 강인한 아버지의 모습도, 강론과 훈계를 멈추지 않으셨던 아버지의 모습도 가정은 물론 부모와 자녀라는 든든한 관계를 지키는 울타리였습니다. 가정의 버팀목이 되어 주셨던 아버지의 모습은 풍파와 세월을 버터내는 고목과도 같습니다.

심재는 고목의 가장 오래된 목부 조직으로, 나무

가 쓰러지지 않고 위로 쭉쭉 커 갈 수 있는 힘이 되지만, 한 번도 자신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초라해진 아버지의 모습은 우리의 자화상이며, 우리는 생이 다 할 때까지 그 길을 뒤쫓아 갈 것입니다. 신명기 6장 2절에 있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의 규례와 말씀을 따라 지키도록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이 영적 성장과 인생의 날을 장구하게 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사 택하신 우리 가정, 그리고 이 가정의 대들보인 아버지의 자리를 지켜 내신 것에 큰 소리로 감사를 외치고 싶습니다. 평생의 수고와 책임감이라는 무게가 만든 아버지의 모습 그 대로를 사랑합니다. 아버지를 한 번 꼭 안아드리며 "사랑합니다" 말하고 싶습니다.

변 진 집사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맞이하는 아버지 날의 의미는 여느 때와는 달리 조금은 특별하게 저에게 다가옵니다. 가족들을 위해 늘 수고하고 애쓰시는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어머니와 한 팀을 이뤄 우리 가정을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의 희생이 2021년에는 더 크게 보이고 더 귀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2021년 올해 아버지 날을 맞으면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꼭 전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아버지 날에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아버지들에게 이 마음을 꼭 전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찬호(12학년)



교회학교 창조과학 캠프

주님은 토기장이

성경 곳곳에 숨어있는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를 말씀으로 풀어가며, 성경에 있는 일들이 모두 역사적인 사실임을 배우게 되었던 지난 4주간의 어린이 창조과학 캠프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과 말씀을 더욱 확실하게 체험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평소에 창조에 대해 많은 궁금증을 갖고 있던 저는 이번 창조과학 캠프를 통해 많은 해답을 얻게 되어 정말로 감동이었습니다. 저의 질문 중 하나는 "옛날 공룡들이 살았을 때 사람도 함께 있었을까?"였는데 그 답은 "그렇다"였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태초에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에는 사람도 공룡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 과학자들은 사람이 있기 전에 공룡이 있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매일매일 창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과학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인 진화론을 그대로 믿고 있지만 우리 그리

스도인들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진리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번 창조과학 캠프를 통하여 저는 이 세상의 많은 잘못된 가르침이 무엇인지, 그런 잘못된 정보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혼란을 주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훌륭한 창조주이신지를 확신할 수 있었던 창조과학 캠프, 저에게는 정말 큰 축복이었으며, 이 캠프를 통해 모든 진리는 성경에 있으며 제 삶의 답 또한 모두 성경 안에 있음을 배울 수 있던 정말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손하람(6학년)

4개의 주제로 진행된 창조과학 캠프에서 저는 수많은 궁금한 질문들을 해결 할 수 있었고, 전에 학교에서 배웠던 것들중에 거짓이 교묘하게 섞

여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하셨으며 어떠한 실수도 없으셨습니다. 노아의 방주 시대에 정확히 무슨일이 일어났는

지,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생명체들은 자신을 보호하려 할 필요도 없었고 남을 해칠 이유도 없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고 완전한 분이신지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학생, 그리고 어른들도 창조과학 캠프에 참석하여 성경의 진리를 함께 배우면 참 좋겠습니다.

이하준(5학년)



예살 새가족 환영회

예수 앞에 나오는자

예배뿐만 아니라 학교, 일터가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많은 예살 청년들이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가기도 하는 등 이곳저곳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지난 1년, 팬데믹으로 인해 모일 수 없던 제약이 무색하게 하나님께서는 예살 공동체에 새 가족들을 꾸준히 보내주셨습니다.

새 가족반 과정 역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새 가족들이 공동체에 정착하셨지만, 예살의 파스함을 소개해드리는 자리가 늘 아쉬웠는데, 지난 6월 첫 주일, 드디어 새 가족 환영회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과연 새 가족분들이 오실까 걱정이 되었지만 늘 그렇듯, 하나님은 스텝 포함 80명이나 되는 지체들이 함께 모여 풍성한 시간을 갖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팬데믹 기간에 오신 분들이라, 어쩐지 평소보다 더 새 가족 신청을 할 때 용기가 필요했는지 모릅니다. 한 분 한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 타주에서 오신 분들도 있는가 하면, 결혼 등으로 인해 새로운 삶의 환경이 시작되어 정착하거나, 혹은 그저 지친 마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딘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렇듯 각자 여러 가지 이유로 예살에 오셨지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귀한 동역자들을 만나며, 서로 위로하고 공감할 수 있음에 주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많이 나누어 주셨습니다.

저 또한 하나님을 모를 때 무작정 예살에 왔고, 많은 분의 도움과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매번 그저 주일에 가던 예배와 모임이 이제는 주님의 몸 된 내가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었고 부족하지만,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늘 두렵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기간에는 마음을 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첫걸음을 내딛으신 모든 새 가족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함께 풍성히 더 깊게 하나님과 서로를 사랑하고 교제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예지 자매(예살 청2)

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목회자◎

기획/행정: 정승락 목사
 믿음 목장/예배/목회지원: 김형균 목사
 소망 목장/선교: 주성필 목사
 사랑 목장/훈련/베델뉴스/기도: 이충경 목사
 은혜 목장/전도/이웃사랑: 김홍식 목사
 화평 목장/베델위십/셀: 박경철 목사
 새가족/경조: 한순고 전도사
 BGC: Justin Kim 목사
 BGC(Family): Dan Nam 목사
 BGC(College/Worship): Peter Lee 전도사
 일본어 예배/헬시바: 손용주 목사
 예심채플(총괄): 강문구 목사
 예심채플: 서찬석 목사
 예심채플: 김유미 전도사
 영어고등부: 여옥제(John) 목사
 영어중등부: 현호승(Daniel) 전도사
 한어중고등부: 이형석 전도사
 교회학교 디렉터: 이진아(Jinah) 전도사
 초등부: 김은정(Jamie) 전도사
 유년부: 장지은(Jieun) 전도사
 유치부: 이승진(Sharon) 전도사
 유아부: 정가영(April) 전도사
 소망부: 박정민 전도사
 Beyond the Blue: 이란해 전도사
 통역/제자반: 이앤드류 전도사

◎성가대 및 찬양팀◎

지휘자: 박정영, 차은하, 이사무엘
 오케스트라: 박정영
 피아노: 신현진, 지지영, 한현미, 이혜경
 오르간: 이정은, 이혜경, 박정연
 솔리스트: 최정원
 뮤직디렉터: 정봉화

◎사역 간사 및 인턴◎

의료상담: 이강민 전도사
 한어권: 정티나 간사
 아기학교: 이제나(Jenna) 전도사
 유년부: 김재은 간사
 한어중고등부: 김소영 간사
 영어중고등부: Grace Park 인턴

◎교회 직원 및 간사◎

사무장: 마현진
 건물/차량관리: 김유호
 사무실: 안현미, 박성혜
 재정실: 이수민
 방송실장: 박주남 전도사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음향: 최철기
 음향: 강창위
 방송실: 최종형, 장석영, 김지현
 디자인: 박선경
 웹: 김정아
 수양관: 오춘란

사역광고

예배 안내 봉사자 모집

영광스러운 예배를 섬기는 자리에 성도님을 초대 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던 기나긴 팬데믹을 뚫고 가며 어느덧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현재는 제한된 인원이 모여서 예배드리지만, 예전처럼 모든 성도님이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찬양하며 말씀을 듣고 더 큰 은혜를 받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현장예배의 감격과 소중함을 새롭게 깨닫는 시간, 주일 예배에 가장 먼저 나와서 준비하고 섬기는 예배 안내팀의 동역자를 찾습니다.

예배 안내팀은 주일 예배를 위해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로 예배 시작 40분 전에 본당 앞에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또한 경건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예배실을 준비한 후, 본당에 도착하신 성도님들을 지정 자리로 안내하는 사역입니다. 또한 현장에서 헌금 봉헌을 원하시는 분들을 안내해 드립니다. 현재 주일 예배 안내팀은 약 25명의 팀원이 함께 사역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교회로 나오시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참 은혜롭고 보람 있는 사역입니다. 역동적인 베델의 예배를 위해 성도님들을 기쁨으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1부, 2부, 3부 예배 중 원하시는 시간으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예배 안내팀 스케줄:

1부 예배 - 오전 6시 15분 사역 시작, 예배 후 정리
 2부 예배 - 오전 8시 20분 사역 시작, 예배 후 정리
 3부 예배 - 오전 10시 20분 사역 시작, 예배 후 정리

▶ 문의: 김응진 집사 (213)215-4977

예배 봉사자

강단꽃(6,7월) | 6/20: 김학남, 박경철 6/27: 김진환, 김한요, 이현주, 한순고 7/4: 옥병광, 정승락

선교후원

[팍송선교사] 창의적접근지역 | 손승옥, 김진영(김은경), 이바나바(옥소리), 장과장(주열매), 호세아(그사랑), Nader(Dina), Yeshua 루마니아 | 서형렬(서정희) 조지아 | 김현수(고봉주) 캄보디아 | 황순현(황현주)
 [협력선교사] 과테말라 실버 | 유한성(유영옥) 기니비사우 | 유요한(글로리아) 니카라과 | 박우석(이현숙) 이스라엘 | 장이삭(정이나) 멕시코 과달라하라 | 허익현(김영중) 몽골 | 을지바트(민애령), Kathy Ribbs 베트남 | 성결(양선) 온두라스 | 이동철(이순미) 우간다 | 박민수(이순영) 일본 | 강민숙(변선영) 캄보디아 | 김우정(박정희) 코스타리카 | 금상호(김미경) 탄자니아 | 황광인(황영숙) 태국 | 박상선(신영선) 필리핀 | 김송봉(유영선)
 창의적접근지역 | 류진, 온세상, 이희숙, 차은경, 김예평(길진명)
 *선교기관 | 나눔선교회, 네이버스선교회, 멕시코 장로회 신학교, 밀알선교회, 바실레이아 신학교, 한미가정상담소, GP미주본부, Good News Spreaders(GNS), JAMA, NAUH, New Hope 선교 유치원, Silk Wave Mission, The Center for BAM(CBAM), The Gospel Coalition(TGC)
 *특별선교 | 복음방송(GBC), CTS, CGN TV
 *문서선교 | 기독교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베델 알림판

◆ **Happy Father's Day!** 오늘은 COVID-19를 지나며 힘들고 지쳐있던 베델의 모든 아버지들을 위해 Father's Day 이벤트가 교회 코트야드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 1부, 2부 예배 후: 사탕 부케, 사진 부스, 커피

- 3부 예배 후: 사탕 부케, 사진 부스, 커피, 골프 게임

(시상품: 골프공 1 sleeve, 골프 모자, 특별 음료 교환권)

◆ **유영 장학생 및 베델 차세대 크리스천 리더 장학생 모집**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정과 패기를 갖추고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이들을 격려하기 위한 2021년 베델 장학생 프로그램에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베델교회뿐 아니라 타 교회 학생들, 목회자와 선교사 자녀들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베델교회에 유영 장학금이 신설되어 장학현금 중, 1만 불을 선교사 자녀 중, 특별히 2-3명을 따로 선발해 지급합니다. 선교사 자녀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자세한 안내와 신청서는 교회 홈페이지(www.bkc.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신청은 교회 행정사무실이나 이메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문의: 5월 16일(주일)-7월 4일(주일), 김교식 집사 scholarship@bkc.org

◆ **장학 특별현금** 우리의 젊은이들이 소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베델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현금 시 '장학현금'으로 체크 혹은 노트해 주시면 됩니다.

문의: 김교식 집사 (949) 812-1423

◆ **베델 수요 프로젝트** 6월 23일 수요일 오전 10시, 수요 프로젝트 "카타콤기도회 Again"의 마지막 회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영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 **다음 세대를 위한 "베델 클래식컬 아카데미" 등록** 베델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클래식컬 크리스천 사립학교를 설립합니다. 이번 가을학기 8월 23일 개교를 위해 준비하고 있으며 첫해는 Kindergarten부터 5학년까지 모집합니다. 등록은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학교 온라인 등록: <https://forms.bkc.org/PrivateSchool/>

문의: Jamie Kim 전도사 Bethelclassical@gmail.com, 강수민 전도사 (949)303-3535

◆ **일본 선교(리모트)팀원 모집** 올해 일본 단기선교는 KM, JM, EM, BYM이 연합하여 온라인을 통해 리모트로 진행됩니다. COVID-19으로 인해 선교지 현장으로 직접 갈 수는 없지만 리모트 선교로 영어 성경 캠프, VBS 사역으로 섬기게 됩니다. 처음 시도하는 리모트 선교가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많은 성도님의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일정: 7월 25일-7월 29일 저녁 시간 (일본 현지 아침 시간에 맞추어 사역합니다)

신청/문의: 홈페이지, 허용진 장로 (714)423-6996

◆ **지역 교회를 위한 베델 온라인 VBS 설명회** 베델 교회학교는 지역 교회들이 온라인을 통하여 더욱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들과 올해 진행하는 VBS의 자세한 사항들을 설명회를 통하여 나눌 예정이니 관심 있는 타 교회 교육부 관련 사역자와 교사는 금일(20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일시/신청/문의: 6월 30일 오후 7시(Zoom), 교회 홈페이지, 각 부서 전도사

Bethel Announcements

◆ **새로운 베델수요프로젝트 "예수아"** 6월 30일(수)부터 새로운 수요프로젝트 "예.수.아"(예수님과 함께 하는 수요일 아침)가 새롭게 편성되어 유튜브로 방영이 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삶과 말씀을 담는 주제로 제작이 되어집니다. 새롭게 시작될 새로운 수요 프로젝트 "예수아"에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 **카타콤 기도회** 팬데믹 중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오던 카타콤기도회가 7월부터 잠시 휴식을 갖고 정비하여 하반기에 새롭게 시작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상반기 마지막 기도회가 6월 24일(목) 오전 10시에 Zoom으로 있게 됩니다.

◆ **주일 예배 주차 안내** 주차 공간의 부족으로 인해 주일 2, 3부 예배에는 이중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 주차하신 분들은 자동차 열쇠를 주차 사무실에 맡겨주시고 티켓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배를 위해 신속한 출차를 부탁드립니다** 예배 중간에는 차량 이동이 어렵습니다. 특히 1-2번 lane은 더블 파킹을 하기 때문에 1, 2부 예배 참석자는 예배 후 차량을 바로 출차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씩의 배려로 모든 분이 은혜로이 예배드리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문의: 홍대원 장로 (714)335-3300

◆ **교회학교 VBS TAKE-HOME BAG 픽업** Mystery Island VBS 등록을 하신 분들은 각 액티비티에 필요한 모든 재료가 들어 있는 Take-Home Bag를 픽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 담당 전도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시/장소: 6월 26일(토) 오전 10시-오후 12시, 교회 파킹랏

◆ **베델 한국학교 가을학기 개강안내** 베델 한국학교가 대면과 비대면 수업으로 2021년 가을학기를 시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학교 홈페이지(bks.bkc.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 기간: 6월 21일-7월 12일

수업 기간: 8월 28일-12월 18일(16주)

수업 대상: 5세 이상부터 중고등학생 (2021년 9월 1일 기준, 킨더 이상)

토요 오전반(대면 수업): \$280 (간식비 포함), \$300 (7월 12일 이후)

토요 오후반(온라인수업): \$180, \$200 (7월 12일 이후)

문의: 이석희 장로 (949)697-7606, 최문정 권사 (949)836-7687

◆ **축하해주세요**

- 김철민/홍점권 집사 가정에 아들 가율이 6월 17일(목)에 태어났습니다.
- 정필주 집사/정정애 권사의 딸 정유경(Judy) 자매와 조성한(Sunghan) 형제의 결혼식이 6월 26일(토)에 있습니다.

◆ **위로해 주세요**

- 故 오복례 권사님께서 6월 9일(수)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 故 김정자 권사님(구영순 권사의 친모, 김한요 목사님의 조모)께서 6월 14일(월)에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 故 조기옥 사모(조명철 목사 아내)께서 6월 16일(수)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베델뉴스
편집위원

■ 발행인: 김한요 담임목사 ■ 편집장: 유미경 권사 ■ 사진: 박상곤 장로, 최호경 집사
■ 기자: 강수연 자매, 김선홍 권사, 김유미 권사, 김지연 집사, 김휴리 집사, 박인주 집사, 박정원 집사, 박진아 권사, 안예진 집사, 최경희 권사, 허성숙 집사, 황수정 집사

◆ 베델뉴스 원고파일은
bethelnews@bkc.org로
보내주세요.

기쁨으로



리셋

Joy of being Put Here (Philippians 1:12–18)

- 1.** Have you ever had a time where your plan failed but the actual result came out better?
Share your experience.

Apply to Life



- 2.** Paul lived for spread of the gospel. His assessment of everything came out of confirming whether the gospel has been advanced. Obviously being imprisoned was a huge distraction to advancement of the gospel. However, Paul being chained was revealed as an advancement to who? (vv.12-14)

1) _____ 2) _____ 3) _____

- 3.** Verses 16 and 17 compares motivation for advancement of the gospel between 'The latter' and 'the former'. Who do you think they are? (v.17, Gal 5:20-21, Ro 1:29)

- 4.** How did 'the latter' interpret Paul's imprisonment? Answer after carefully reading v.16 in Korean and English. (Ref: Gen 50:20, Ro 8:35-39, Ro 8:32)

v.16 "The latter do so out of love, knowing that () for the defense of the gospel."

- 5.** Take the current situation you're in and interpret by faith.